

3월 둘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더이앤엠, 인니 콘텐츠 투자사와 공동 투자 계약 체결 (p. 1)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3/231701/>)



인도네시아, '포장재' 수요 증가 추세 (p. 2-3)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7716/cat/10>)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서 `드론 택시` 첫 시험 비행 (p. 4-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3/246904/>)



영국 아비바생명, 인도네시아시장에서 6년여만에 철수 (p. 6)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003110916382254b5d048c6f3_1)

더이앤엠, 인니 콘텐츠 투자사와 공동 투자 계약 체결

김경택 기자 입력 : 2020.03.05. 09:41:44

한류 영화·드라마 인니판 리메이크 제작 사업 공동 투자
첫 작품으로 인도네시아판 `미녀는 괴로워`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이앤엠(THE E&M)이 인도네시아 미디어
콘텐츠 시장 투자를 통해 해외 콘텐츠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더이앤엠은 인도네시아 종합 미디어 콘텐츠 투자회사인 미래로엔터
미디어(MIRERO ENTE MEDIA)와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더이앤엠은 미래로엔터미디어와 공동 투자 사업을 통해 작품성과 흥행성이 입증된 한국 영
화와 드라마를 인도네시아판으로 리메이크해 개봉시킨다는 계획이다. 첫 작품으로 한국에서
큰 흥행을 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리메이크해 개봉시킬 계획이다.

미래로엔터미디어는 인도네시아 최대 영화 콘텐츠 제작사인 믹스엔터테인먼트(THE MIX
ENTERTAINMENT)와 공동으로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믹스엔터테인먼
트는 인도네시아 영화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돼 있는 MD픽처스
(MD Pictures)와 중국 싱싱(XingXing) 그룹과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믹스엔터테인먼트는 한
국 공포영화 `여고괴담`을 인도네시아판으로 리메이크한 영화 `SUNYI`를 지난해 4월 개봉시
킨 바 있다.

더이앤엠과 믹스엔터테인먼트, 미래로엔터미디어 3사는 지난해 8월 영화 및 드라마 등 콘텐
츠 투자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더이앤엠은 온라인 방송 라이브 플랫폼 기술력과 MCN(Multi Channel Network)을 통해 인
터넷 방송 문화를 선도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국내에서 대표 개인방송 플랫폼인 `팝콘
TV`와 셀러브리티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셀럽TV`를 서비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
우 큰 시장"이라며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
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포장재' 수요 증가 추세

백승연 기자 | hundred@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20-03-09 05:57

최종수정: 2020-03-09 10:42

뷰티 및 퍼스널케어·홈케어 제품 등에서 판매 규모 가장 커



인도네시아는 소비재에 대한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진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 발표한 '인도네시아 포장재 시장 동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용 및 퍼스널케어, 홈케어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며 유통시장이 발전되는 등에 따라 포장재 산업이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소비재 산업 분야에서는 식음료 포장재의 판매 규모가 가장 크며 뷰티 및 퍼스널 케어, 홈케어 제품, 반려동물 사료 포장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의 주요 포장재 수입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 보호 정책 추진 및 관련 캠페인 이행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소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류 포장재뿐만 아니라 종이류, 철강소재 수입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포장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한국·독일·이탈리아·미국·영국 순이며 한국은 6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수입국 중 중국산, 태국산 등 제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으로 보여진다.

2019년 한국산 주요 포장재의 수입 규모는 2501만 달러(약 297억원)로 지난해 대비 9.5%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포장재 수입 중 제지 소재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되며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를 지정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소비재 포장재 시장의 원활한 진출 방법의 하나로 보인다.

특히 포장재 업계에서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된 파트너사는 매출 증가를 도울 뿐만 아니라 통관 처리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파트너사가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유통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인도네시아 포장재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PT Dynaplast Tbk', 'PT Berlina Tbk',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등이 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물건에 대한 단발성 호기심이 높은 편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포장재가 각광 받을 것"이라며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재질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최근 인도네시아는 비닐봉지 사용 제한 등에 따라 바나나 잎, 카사바 잎 등을 이용한 포장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소재 용기 관련 사업을 구상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친환경 소재 포장재의 내구성, 비용 등에 따라 소비 규모가 결정될 수 있어 친환경 소재 포장재 사업에 앞서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서 `드론 택시` 첫 시험 비행

입력 : 2020.03.09 16:19:39 수정 : 2020.03.09 16:32:31

`Frogs 282` 2인승·200kg 싣고 최대 100km 비행 목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욕야카르타)에서 7일 드론 택시가 첫 시험 비행을 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자체 개발 드론 택시 'Frogs 282'

족자카르타 반톨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프로그즈`(Frogs·개구리)는 승객 운송용으로 제작한 드론 `프로그즈 282`(Frogs 282)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동 창업자 아스로 나시리는 "2017년 9월에 드론 택시를 처음 디자인하면서 개구리 모양을 생각해 이름을 붙였다"며 "프로그즈 282라는 명칭은 승객 2명, 모터 8개, 2세대 드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드론 택시는 최대 200kg을 싣고, 한 번 충전으로 100km까지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관은 무게가 가볍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탄소섬유로 제작됐다.

DRONE FROGS V.2

MAXIMUM DISTANCE
100km single charge

MOTOR
8Motors

MAXIMUM SPEED
100 km/h

MAXIMUM HEIGHT
2.400MASL

Produk Frogs V2



PASSANGER
2Person

MAXIMUM LOAD
200kg

MAXIMUM DURATION
15x2Minutes

TAKE OFF METHOD
Vertical(VTOL)

아스로는 "드론 택시는 좁은 장소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며 "시험 비행을 통해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해 7월에 완성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시험 비행에서 프로그즈 282는 지상에서 높게 날아오르지는 못했다.

아스로는 오는 7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기술 전시회 `하노버 메세`에 완성된 드론 택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드론 택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노비에 리안토 교통부 항공국장은 "여객용 드론과 관련해 비행 안전성, 보험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서 '드론 택시' 첫 시험 비행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신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신수도에는 전기차만 운행하고, 드론 택시가 날아다닐 것이라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자카르타 외곽에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들이 신수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7월 신수도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단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글로벌-Biz 24] 영국 아비바생명, 인도네시아시장에서 6년여만에 철수

박경희 기자입력2020-03-11 14:17

합작 파트너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에 아스트라아비바생명 지분 전량 매각



영국 런던의 아비바생명 본사. 사진=로이터

영국 보험회사 아비바(Aviva)는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키로 하고 인도네시아 합작사에 합작회사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10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아비바는 인도네시아 합작사 아스트라 아비바 생명(Astra Aviva Life)의 지분 전부를 합작파트너이자 동남아시아 최대의 독립 자동차그룹 아스트라 인터내셔널(Astra International)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아비바생명은 지난 2014년 50대 50 합작사를 설립해 인도네시아시장에 진출한 이후 6년여만에 인도네시아시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아비바는 "이번 아비바생명의 인도네시아 합작사 지분매각은 올해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의 규제당국의 승인 및 방콕은행의 아비바 인도네시아의 방카슈랑스 파트너인 퍼마타(Permata)은행 인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콕은행은 지난 5일 퍼마타은행의 매수를 승인했다. 방콕은행은 지난해 12월 해외상장의 일환으로 상장은행 퍼마타은행 지분 89.1%를 스탠다드차타드 및 아스트라 인터내셔널로부터 약 26억7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은 각각 44.56%의 퍼마타은행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들이다.

아스트라아비바생명은 지난 2014년 5월에 합작사로 설립됐으며 2018년까지 7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해왔으며 14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해 영업을 해왔다. 지난해 4분기 총자산은 5조9000억 루피아(4억700만 달러)로 전년도와 비교해 9000억 루피아의 성장을 이루었다.

아비바생명은 지난해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모리스 툴로치(Maurice Tulloch)의 취임이후 아시아사업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아비바생명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중국에서의 사업을 지속할 것을 결정했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사업에 대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